

Baewha Worship

2016.03.20

Lent

사순절 제6주



Baewha Church Message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바로 <오늘>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다. 오늘, 예루살렘은 금요일에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러지 않아도 북적거렸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더욱 떠들썩했다. 며칠 전 베다니라는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사건 때문이었다. 그 소식은 인파를 뚫고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에 비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상을 알고 믿고 환호하는 것일까. 아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며칠 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토록 환영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열광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환호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이었다.

그리고보니 그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가 다시 보인다.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민족해방운동을 벌였던 마카비를 기념하는 도구였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해방을 가져다 줄>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음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 달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다.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연약한 시골의 현자에 불과했다.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과 5일 후 금요일 아침, 호산나를 외치던 바로 그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오늘, 적어도 외양적으로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꺼풀만 벗겨내 보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허상을 좇는 자들이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명에만 집착하는 우상을 좇는 사람들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5일 후 금요일 아침, 빌라도의 법정에서 놀랍게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군중과 같은 성도가 오늘날에는 또 얼마나 많은가? 오늘 종려나무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광신도를 닮았다. 열심은 있는데 거만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만 편견에 갇혀있고, 기도하며 울지만 놀랍게도 연약한 자를 보고 울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해 거칠기 짝이 없다. 왜 그럴까? 그건 그들이 지나치게 기독교적이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광적으로 열심이고 광적으로 용감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겸손하고, 온유하며, 배려하고, 공감하는 일에는 광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로 이어진다. 이것이 성경이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을> 버렸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었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메시지이다.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노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참된 완전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1.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3.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3.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 큰 죄악 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커가는 작은 교회

배화교회

Baewha Community Church

예배의 부름 *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송영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 (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 (2) 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 (3) 온 천지 창조 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 (4)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전능하시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배합니다

그가 오신이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회중기도 정유민 성도

기도송 우리의 기도를 통해

C F/G G/C C F/G G C F/G C C7 F C/E

우리의 기도를 통해 - 오주여 일하소서 - 주의 뜻이 이루어

6 F C2/E F G C Gm C7 Dm7 C/E Dm7/F F/G G C F/C C

서 - 아 - 멘 - 아 - - - 멘 -

교회를 위한 기도 다함께

- (1) 배화교회의 1세대이자 한국교회의 2세대인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잘 물려 받아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 (2)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배우는 고난주간 되게 하소서.
- (3) 금주 예정된 정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시작되는 사역을 통하여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책임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기도송 우리 교회의 기도

C C/E F C/E Am Dm D/F# G

하나님을 사랑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부드럽게 항상 감사하고 남편을 존경 아내를 사랑
진심으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가 되고

5 C C/E F C/E F C/E G C

우리 땅에 미움 없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는 -- 주님의 가정 안에서
주님 뜻이 이루어 지는 교회 하나뿐 나라 임하소서

교회소식 김영석 목사

- (1) 4월10일(배화교회설립예배)부터 완공된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 (2) 일곱번의 기도모임: 2월27일-4월9일(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3) 오늘 점심식사 후에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배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정례회의 후에, 김영석 목사님 가정 심방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송민혜전도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하우원 선교사님께서 말씀전해 주십니다.



성경봉독 다함께 *일어서서

<요한복음 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기이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3)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말씀선포 김영석 목사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다"

봉헌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405장)

*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축 도 김영석 목사